

2023 가을

제224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서로 사랑하여라



해외 선교 사제

10개 국가 22명

• 독일 신정훈 미카엘

• 프랑스 이승규 클레멘스

•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일본

김태근 베드로 (P.04)

김윤복 모세 (P.10)

신광수 베드로

김필중 세례자요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김성천 스테파노

정해성 베드로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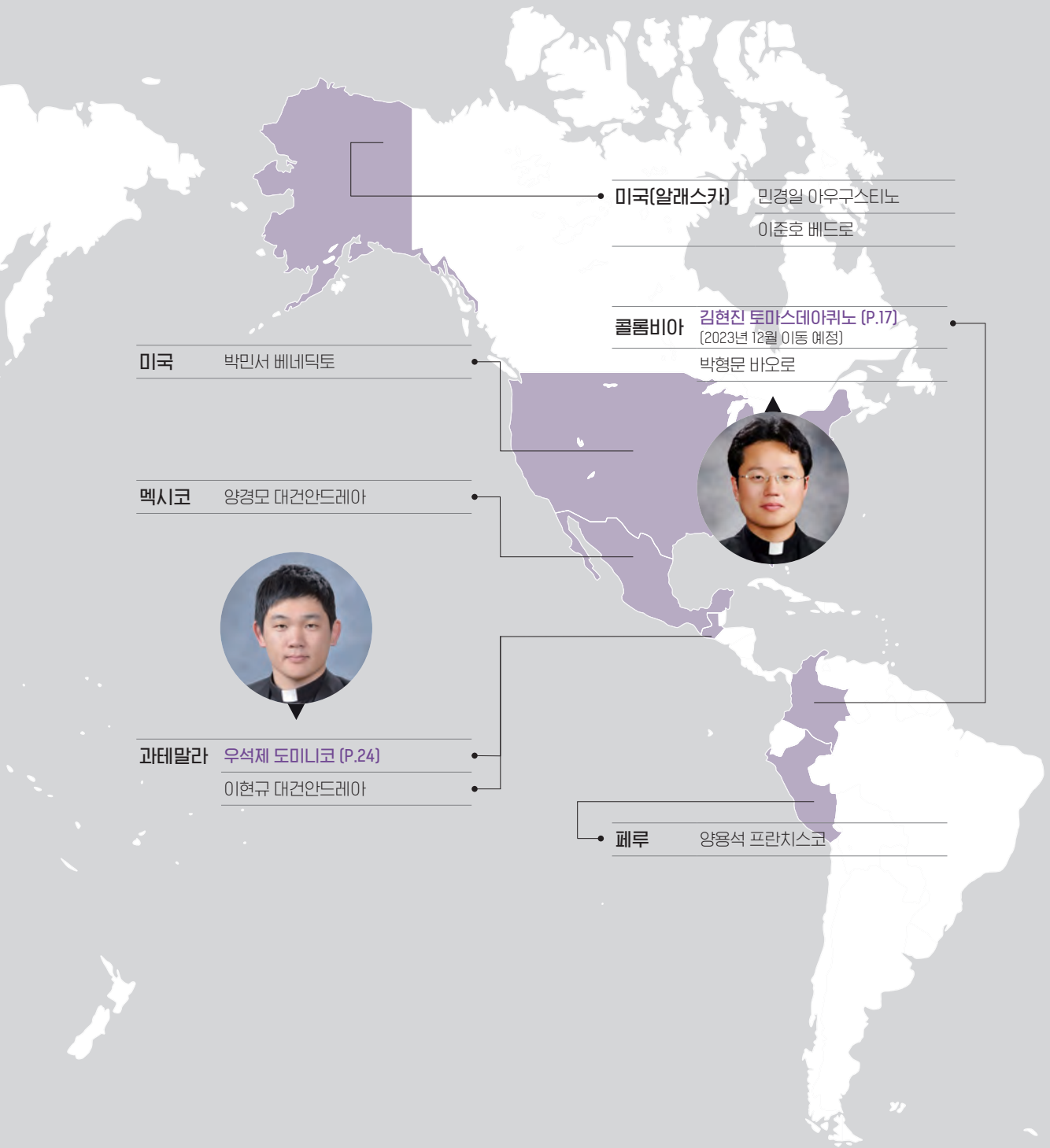
김경진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샤벨



가을호 특집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일본 김태근 신부 (p.04)



•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이준호 베드로

콜롬비아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P.17)
(2023년 12월 이동 예정)
박형문 바오로

미국 박민서 베네딕토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과테말라 우석제 도미니코 (P.24)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우·본·소

일본 | 오사카대교구



김태근 베드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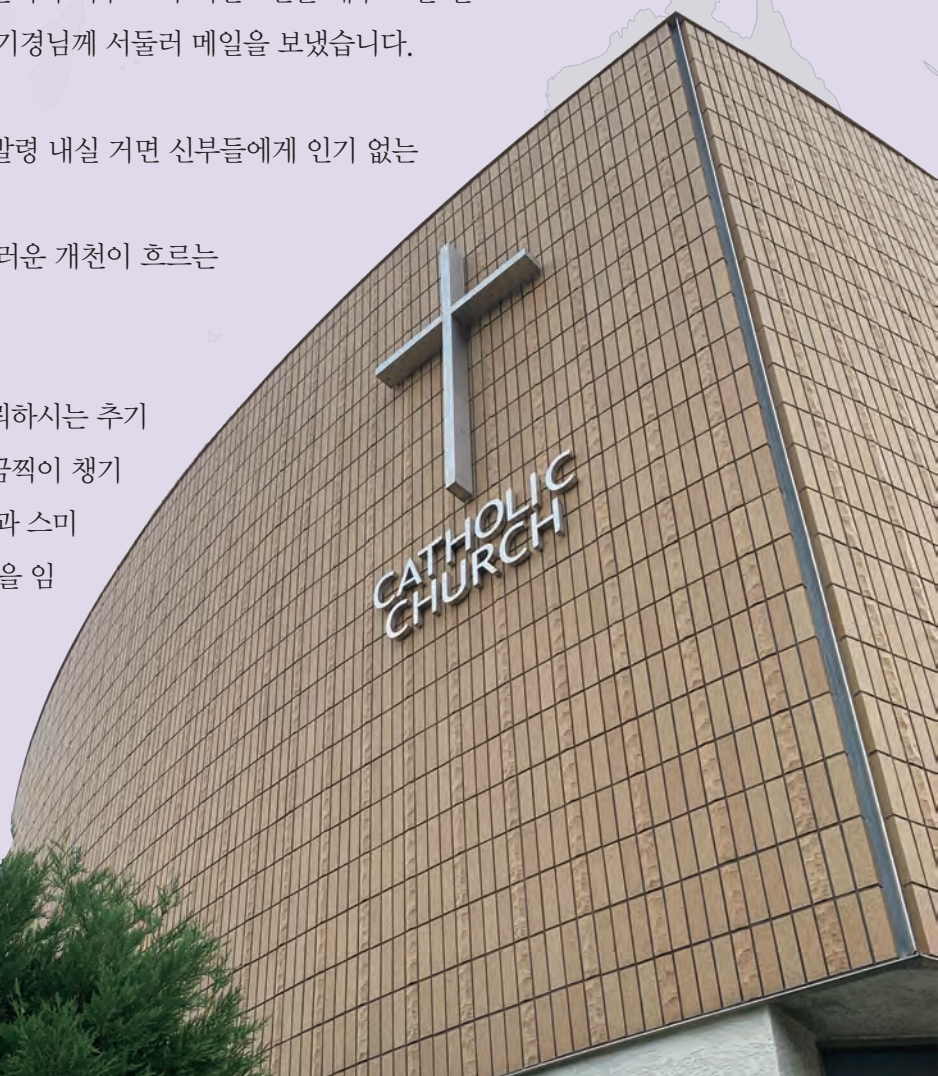
지금 당신은, 당신이 꿈꾸던 본당에 와 있나요?

올봄 4월 말부터 효고현 고베시 나다구에 있는 스미요시 성당에 와 있습니다. 오사카대교구에 파견되어 의무 교육 기간 2년을 채우고 곧 발령받을 것을 직감한 저는 추기경님께 서둘러 메일을 보냈습니다.

“추기경님, 혹시 이번에 저 발령 내실 거면 신부들에게 인기 없는 시골 본당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시골스러운 개천이 흐르는 ‘도시’입니다.

각별히 한국인 사제들을 신뢰하시는 추기경님께서서는 이렇게도 저를 꼼짝이 쉰기 시어 화려한 고베 중앙 성당과 스미요시 성당 두 곳의 공동 사목을 임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성인 성 세레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명하셨습니다. 어학 1년, 어학 공부하면서 협력 사목으로 1년. 그리고
이젠 공동 사목으로 본격적인 일본 선교의 시작. 부족함 투성이 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부족함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느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탓이오.

새로이 부임해서 사목회 분들과 조금 더 친해질 겸, 야키토리(꼬치구
이) 가게에서 회식했습니다. 정말 TV에서만 보던, 장인의 솜씨가 느껴
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닭의 다양한 부위와 더욱더 다양한 요리법에
감탄하며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다음날이었습
니다.

전날 시만토 토종닭이라며 싱싱한 닭의 간을 날로 처음 먹어본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생-닭-간”은 처음이라며 극찬했건만, 다음
날 오후부터 몸이 요동치는 것이 급기야 오한, 발열에 결국 그다음 날
아침 미사마저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을 앓았
으며,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신자분들이 한 분, 두 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제 곁에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혹시 제가 사다 드린 ○○○ 드시고 그런거예요?”

“신부님 혹시 제가 만들어 드린 ○○○가 잘못됐나요?”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찾아와서는 혹시 본인이 건네준 음식 때문에 탈이 났냐며 정말 죄송하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하나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가톨릭 신자라 그런 걸까요? 모두가 먼저 자기 탓을 하는 모습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부족한 언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키워보고자 사무처 신부님께 부탁을 드려 지난달부터 다시 1년 어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미사가 있는데, 미사가 끝나고 밥을 천천히, 빨리 그리고 많이 먹고 8시 37분 급행열



차를 타면 간당간당 어학원에 도착합니다.

앞서 조금은 공부를 한 덕에 이번 학원에서는 입학하자마자 최고 레벨의 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 대한민국까지 정말 인터내셔널한 클래스입니다.

반 학생은 저를 포함 20명이고, 모두 성실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비가 부족해 돈을 벌면서 다니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 혹은 이른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합니다. 편의점이나 반찬가게, 회전초밥, 레스토랑 등 등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보면 밥 한번 사주고 싶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찌주에 삼겹살' 한번 거하게 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유학생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라 술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는군요. 거참….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지진 피난 훈련을 했습니다. 사이렌이



올리자 머리 위로 가방을 들어 올린 채 모두 조심스레 밖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일 상위권인 학생들은 어학원의 가장 높은 층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죠. 교실이 있는 6층에서부터 가방을 머리 위에 얹은 채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다시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문득 이것이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우린 희망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언젠가 한국에서 온 신부님들과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신학생 시절 보좌 신부님이셨던 신부님과 일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신부님께서 초고령화된 일본 교회 신자들, 그들의 마지막을 잘 챙겨주는 것도 좋은 몫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납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두 분이 그런 말씀을 건네셨답니다. “내가 모르는 신부님에게 나의 장례미사를 맡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시설에서 요양 중이신 할머니들을 종종 만나러 갑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8월 12일 오늘 낮에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병자 도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주일미사 입당하기 전 신자석을 보면 희끗희끗 백발의 신자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꼭 젊은 신자 비율이 높아야 성당에 활기가 도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7인의 사무라이, 카미 세븐. 별명도 많은 이곳 아침 미사 멤버들(평균 74세)은 아침 6시 30분부터 모여 일사불란하게 미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입당, 화답, 파견 성가를 성당 뒷편에서 연습 하고서는 미사에 임합니다.

성당 내 다양한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보청기에 의존하시면서도 성당 안의 교적을 꼼꼼히 정리하시는 85세의 할아버지. 미사에 도움이 되고자 매주 주일미사 슬라이드를 만드시는 76세의 할머니.

활기는 꼭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평일 미사 멤버들이 부르는 아침 성가를 통해 전해주고 싶군요. 꽤 아름답거든요!

일본 요코하마교구

김윤복 모세 신부

미사가 끝나고 난 뒤, 땀으로 흠뻑 젖은 제의를 보며 어느 때보다도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이 건강히 여름을 보내셨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요코하마교구 고텐바 성당에서 4번째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고텐바 성당은 고령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아직 미사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고베 사제 모임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성인 성 세례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구역 대교구 3개, 교구 13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덥고 반복되는 일상 중에 단비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된 서울대교구 선교 사제 모임에 이어서 올해 오사카 교구 고베에서 두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시시각각 고베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태풍의 진로를 알려주는 일기예보를 보며 고베 중앙 성당에 모인 7명의 신부와 해외선교 체험을 온 4명의 신학생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함께 미사하고 서로 무탈하게 살아왔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아저씨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딱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함께 미사하고 밥 먹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 년을 살아갈 힘을 얻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의 더운 여름날, 제가 있는 고텐바 성당에서 9년 동안 사목하셨던 밀라노 선교회 신부님이신 마리오 비얀킨 신부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당 사목회장님과 함께 요코하마교구 주교좌 성당인 야마테 성당에서의 장례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965년에 서품받으시고 1972년에 일본에 오셔서 사제로서 활동하시면서 2023년까지 긴

시간 동안 요코하마교구에서 본당 사제로서 활동하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교구 사제회의 때도 직접 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인사를 나누는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본당 사제로서 본당 신자분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비얀킨 신부님 장례미사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이며, 주님의 선물이기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장례미사 중에 교황대사는 미사에 참석한 분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할 때, “비얀킨 신부님이야말로 선교사의 죽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비얀킨 신부님이 작년 성탄 때 가족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이며, 주님의 선물이기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날이 더워서 땀을 흘리며 버티는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던 저에게 비얀킨 신부님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었던 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신자들

과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벽을 느낄 때, 그냥 한국에 있을 걸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자잘한 고민을 했는데, 50여 년의 세월 동안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사목하신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사는 곳

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사제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기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신자분들과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겠지만 그래도 비얀킨 신부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동안은 예전보다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돌아오고 나서 혼자서 후지산 기슭에 있는 본당 묘지에 성묘하러 갔습니다. ‘후지영원’이라는 공동묘지 일부를 예전 본당 주임 신부님과 신자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산 본당 묘지입니다. 후지산 자락에 있어서 경치가 좋고, 위령성월이 되면 신자분들과 함께 성묘하러 가서 매년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나 그날은 혼자 가서 물로 비석에 묻은 먼지를 씻으며 그곳에 계신 예전 본당 신부님인 마린 신부님(파리외방선교회)과 본당 신자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얀킨 신부님도 그러셨지만, 이미 이곳에 묻혀계신 마린 신부님도 고향을 떠나 먼 이국의 땅에서 사목하시고, 당신의 신자들과 함께 누워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코하마교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부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날만큼은 조금이나마 두 분 선임 주임 신부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이지만, 그 역사 안에는 단지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향을 두고 멀리 타국까지 와서 사목하고 돌아가신 많은 외국 신부님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진 빛을 갚는 마음으로 저도 타국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넓고 깊게 전해지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타이중교구

임창재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찬미 예수님!

무더운 날씨에 다들 안녕하십니까? 8월 말에 접어든 대만은 하루하루가 무덥습니다. 딱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땀이 줄줄 흐르고, 밤에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하며, 그렇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제가 만나는 대만 신자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은퇴하셨거나, 오래 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에 자주 오시고 그러다 보니 한 분, 한 분 가까워져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면적 3.6만km²
[세계 136위,
남한의 약 1/3]

인구 2,381만명
[세계 57위]

종교 불교 35.3, 도교 33.2%
기독교 3.9%
전통도교 또는
전통유교 10%,
기타

관할 대학교 1개
구역 교구 7개

첫 번째 할머니님은 일명 ‘기도 할머니’(제가 지어드린 별명)입니다. 신자 분들께서는 평일 미사가 끝나면 묵주 기도를 바치고 나서 귀가하시는 데, 이 할머니님은 그 후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기도하십니다. 저도 따라서 열심히 묵주를 돌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끝에는 할머니님과 저만 남게 됩니다. 할머니님께 인사드리고 올라오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할머니님의 손에 들려 있는 오래된 낡은 기도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할머니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혼들을 마음에 두신 듯합니다. 가끔 그렇게 위령 미사를 봉헌하시기도 합니다. 오래된 책자를 손에 들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렇게 기도 바치신 후 조용히 성전을 나가시는 모습까지...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는 평안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할머니님은 일명 ‘달걀 할머니’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님은 매일 미사에 오시는데, 전용 손수레를 지팡이 삼아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곧 할머니님 전용 자리에 손수레를 주차하신 후 늘 앉으시는 자리에 앉아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다른 신자분들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면서 자주 졸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짝 옆에 가서 앉으면, 이내 곧 잠에서 깨시어 밝게 웃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내미시는데 그건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아침 식사로 삶아 오신 것 같은데 눈앞에 제가 있으니 당신 것을 주셨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더 삶아서 가져다주셨습니다. 어찌다 얼굴을 못 보면 사무실 한쪽 서랍장에 휴지로 돌돌 말은 삶은 달걀을 두고 가십니다. 몇 번이나 사양했었지만, 받지 않으면 무척 서운해하셔서 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 맛있게 먹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미사 내내 흘린 땀으로 흠뻑 젖어버린 제의를 벗어 놓고, 할머니님들과의 소중한 하루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할머니님 덕분에 저도 기도할 수 있고, 옆자리에서 따뜻한 달걀을 건네



시는 할머니님 덕분에 저는 힘을 냅니다.

돌아보니, 이러한 주변 분들 덕분에 잘 살아왔고, 또 지금도 다른 여러분들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더욱더 깨달으며, 많은 은인을 떠올리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고마우신 분들, 모든 일이 하느님 뜻 안에서 순리대로, 평화로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들 영육 간에 건강히 지내십시오! 아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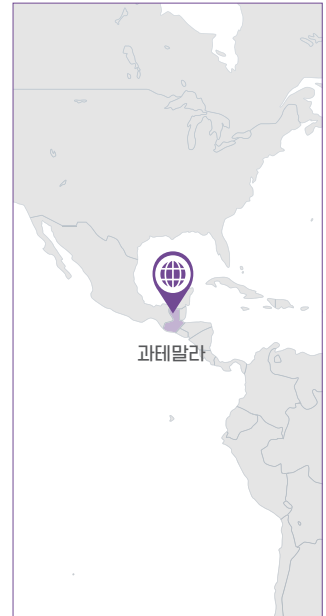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더욱더 깨달으며,
많은 은인을 떠올리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과테말라 선교를 마무리하며...

지난 2014년 6월 한국에서 과테말라로 파견되어 선교사로 살아온 지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8월 31일을 끝으로 과테말라를 떠나 새로운 선교지로 파견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요즘입니다. 약 두 달 전, 본당 신자들에게 이동 소식을 알린 후에는 특히나 더더욱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긴 시간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신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사제로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순명의 자세 역시 잘 알기에 특히나 여러 감정이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 또 본당 단체들과 송별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결코 힘든 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과테말라에 도착했을 때 떨리면서도 두려운 마음 역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고, 새로운 문화와 음식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혀 다른 의료 체계에서 아플 때는 정말 어찌할지도 모르는 채 그저 참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많은 분의 기도와 도움 덕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저 혼자서 타지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시간이 아닙니



다. 간접적으로는 한국에서 많은 신자분이 또 다른 모습의 선교사로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고, 또한 과테말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또한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한국의 신자분들과 또 과테말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란?

처음 과테말라에 와서 언어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던 화두는 ‘선교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선교사로서 파견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에서 나름대로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하며 준비도 하였지만, 실제로 선교지에 파견되었을 때 선교사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립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면적 108,889km²
[세계 105위,
한반도의 1/2]

인구 1,791만명
[세계 66위]

종교 천주교 47%
개신교 40%

성인 1명

복자 15명

수호 성인 성 아고보[대]

관할 구역 대교구 2개, 교구 11개
성직자치구 1개
대목구 2개

하느님의 복음 선포와 만민 선교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선교사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확립하게 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님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제 나름대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로서 당연하면서도 특별하게 거행할 수 있는 성사 생활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테말라에서는 독재정권 당시 약 30년간 사제들이 추방당했던 시기가 있었기에, 신자들이 성사 생활, 특히 성체 성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끼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제가 없는 시기에 독재정권에서는 교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때 신자들이 신앙과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교회 안의 성인들의 성상들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신자들의 신심이 ‘성사 중심’보다는 ‘성상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렇게 신



양생활을 해 왔으니 당연히 사제가 와도 성사 보다는 성상을 우선시 하는 신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본당의 미사가 있어도 본인들이 모시는 성상에 대한 행사 준비가 더 우선시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신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긴 시간 사제가 없던 시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또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제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성상 보다는 성사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신자들과 성사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주일에 본당과 공소들에서 봉헌해야 하는 많은 미사 안에서, 회합과 피정 등등이 겹칠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일 저녁 마지막 미사를 드릴 때 다리가 떨리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이 미사에 함께 하러 온 신자들에게는 첫 미사임을 기억하며, 정성껏 봉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체 성사임을 잘 기억하고, 미사를 중심에 두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또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열매 ‘청년 성서모임’

특별히 또 감사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청년 성서모임’입니다. 작년 2022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선교사 협의회 모임인 ‘AMICAL(아미칼)’에 참석했을 때, 우연히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소속의 임마누엘 수녀님을 통해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 성서모임 창세기 교재가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소식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신자들과 이제 성사 안에서는 깊은 일치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다음 단계로 생각했던 신자 재



교육에 필요한 마땅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빈약하였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성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주일 학교 교사 시절 나눴던 청년 성서모임이 늘 떠올랐지만, 마땅한 스페인어 교재가 없었기에 늘 아쉬움이 마음 한 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성서모임 창세기 교재가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페루에서 이미 창세기 그룹을 진행하고 있다는 수녀님의 말씀에, 저도 작년 8월 본당에서 교재를 가지고 8명의 청년과 함께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8명을 위한 창세기 연수를 잘 마쳤고, 말씀의 봉사자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룹을 올해 2023년 3월에 시작하여 7월까지 창세기 공부와 연수를 마치고, 14명의 새로운 봉사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 22명의 봉사자와 함께 새로운 세 번째

그룹원들을 모집하고 얼마 전 첫 모임을 하였을 때, 33명의 그룹원이 새롭게 모여서 어느새 과테말라에서 봉사자들 포함 55명의 신자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점점 열매를 내어가는 모습이 정말 신비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얼마 전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성서 입문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과테말라에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지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이사 55, 11)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 과테말라 청년들의 마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을 기준으로 8월 30일 수요일 저녁에, 칠레에서 6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이어서 과테말라에서 새로운 선교 생활을 시작하는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부임 미사가 본당에서 거행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제를 저희 선교지에 파견해 주시고, 또 그동안 이곳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과테말라 산 베드로 공동체가 새로운 신부님과 함께 주님을 사

랑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 역시 새로운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우석제 도미니코 신부

+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3년 4월부터 과테말라에서 지내고 있는, 새내기 선교 사제 우석제 도미니코입니다. 현재 저는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사카테페케스 지역에 위치한 ‘사도 베드로와 세례자 요한 성당’에서 주임 신부님의 사목을 도우면서 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본당에서는, 이미 6년 전부터 저의 선배이신 김현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님이 주임으로서 열심히 사목해오고 계셨습니다. 김 신부님은 이제 곧 9년간의 과테말라 선교를 마무리하고, 선교의 열정을 이어 나가기 위해 콜롬비아의 선교센터로 임지를 옮기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기 신부이자 지난 6년간 칠레에서 선교 사제로서 살았던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김 신부님의 뒤를 이어 본당의 교우들과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 또한 1년 동안의 어학 과정을 끝마치고 나면, 내년 2024년 4월부터 이곳 본당의 보좌신부이자 선교 사제로서 교우들과 함께 살아갈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저는 곧 동기 신부와 한 본당에서 주임신부와 보좌신부로서 사목하게 됩니다. 그만큼 설레는 기대를 안고 주님께 도움의 은총을 청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저는 감사하게도 선배 선교사 신부님의 열정을 곁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부족한 언어로 말을 더듬거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현지 신자분들을 만나면서 이곳 신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미리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천주교회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과테말라 교회에, 선교 사제로서 영신적, 사목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참으로 신비롭고 뜻깊은 하느님의 섭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빌어 서울대교구 사제로서 처음으로 과테말라에 파견되어, 많은 고생을 겪으며, 곧은 심지와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곳 본당의 신자분들과 기쁜 여정을 걸어오신 김현진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 사제로 파견되기 전에는 5년 동안 군종 사제로서 사목했었습니다. 군종 사제로 지내면서, 군대에서 제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었습니다. 또한, 일반 본당과는 달리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기에 꽤 크고 많은 갈등도 겪어야 했습니다. 늘 저의 마음속에는 사제로서의 정체성과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다툼이 자리했고, 이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러한 어려움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넓



은 마음을 가지게 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직장인의 출퇴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고, 집안일이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사에 참례하시는 신자분들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함마저도 우리에게 선용하신다는 말처럼, 저에게는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주변 환경들이 후에는 저를 예전보다 더 넓은 마음을 지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중 신부를 마친 후에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환경에 나 자신을 던져 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서로 사랑하여라’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교 사제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차츰 제 마음속에 해외 선교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해외선교봉사국 담당이신 구요비 주교님을 뵈게 되어, 전역 후에 선교 사제를 지원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져 지금은 이렇게 과테말라에서 ‘서로 사랑하여라’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스페인어를 배우는 상황이라 선교사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자분들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그분들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보낸 짧은 선교 사제의 삶은, 제가 가져왔던 고정 관념들을 이미 많이 바꾸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는 선교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이곳만의 진풍경인 성체

행렬에 동참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체를 모시러 나오는 신자분들의 겸손한 눈빛과 성체 행렬 안에서 성광을 응시하는 신자분들의 절실한 모습은 저에게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곳 신자분들은 일상 안에서 자주 예수님을 찾고 성당을 지나칠 때마다 성호를 그으며, “하느님이 먼저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신심 행위가 한국 사람인 제 눈에는 기복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이분들의 순수한 믿음은 늘 저를 새롭게 깨워해주곤 합니다. 저는 이곳에 신앙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파견되었지만, 오히려 하느님은 저에게 현지 신자분들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선교 사제의 삶 안에서 의미 있는 선물을 주실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저에게 이러한 감명을 주신 현지 신자분들은 오히려 저에게 이곳에 외주어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에 제가 그들에게 받은 치유와 신앙심에 대한 고마움을 진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아직은 언어가 짧아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시작할 선교지 사목을 잘 수행하기 위해, 올 10월부터 3개월 동안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어 어학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에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마저 남은 어학 기간을 충실히 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곳 신자분들께 미처 전하지 못한 저의 마음을 한껏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아울러 먼 나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0개 국가 22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일본	김태근 베드로
	우석제 도미니코		김윤복 모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광수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사벨		김필중 세례자요한
	김경진 베드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알래스카)		김성천 스테파노
	이준호 베드로 (알래스카)		정해성 베드로
	박민서 베네딕토	프랑스	이승규 클레멘스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콜롬비아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2023년 12월 이동 예정)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박형문 바오로
독일	신정훈 미카엘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3년 6월~8월 납부일 기준]

29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2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후원 신청 QR

주교회의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가톨릭평화방송 공동제작 특별기획 <미션3>

주교회의의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3차 해외선교의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돌아보고,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회차	방송일	출연자 (원소속 / 선교지)
1부	10월 22일 (전교 주일)	Fr.손명준, 이상규 (수원교구·남수단 롬벡교구)
2부	10월 29일	Fr.양용석 서울대교구·페루 카리바이교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협력사제]
3부	11월 5일	Fr.김동진 (대전교구·칠레 산티아고대교구)
4부	11월 12일	Fr.김태근 (서울대교구·일본 오사카대교구)
5부	11월 19일	Fr.김윤일 (한국외방선교회·파푸아뉴기니 멘디교구)
6부	11월 26일	1~5부 종합편





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오후 2시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신부
(미국 알래스카 선교)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안토니오 국장신부
유동철 리노 차장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공지사항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
에 어려움이 있으오니 필히 전화주시
기 바랍니다.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국민은행

375-01-0091-080

신한은행

140-009-624437

농협은행

386-17-00288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사제 모임 (담당 차장 신부 주관)	10월 16일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해외선교 지원사제 모임 (담당 주교님 주관)	11월 20일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